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 효제충신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제1장>

남산에 맑던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이 그다지도 날렐시고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A]

<제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B]

<제3장>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쉬인 꽃 여원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이 이 향기 알면 애 풀일까 하노라

[C]

<제6장>

- 이신의, 「단가육장」 -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우로: 비와 이슬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적객: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나)

백옥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 치니

해질 녘 대나무에 옷소매 얹고 차구나

난초를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 곳 구름 길이 험하구나

다 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 초췌한 이 얼굴이 임 그려 이려한가

친 층 파도 한가운데 백 척 장대에 올랐더니

뜻밖의 회오리바람 환해* 중에 내리나니

억만 길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네

노나라 호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나라 사람이 취한 잔에 월나라 사람이 무슨 탓인가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蘭)이 반이나 시들었구나

(중략)

바람에 부대껴 흑룡강에 떠러진 듯

천지는 끝이 없고 물고기와 기러기도 무정하니

옥 같은 얼굴을 그리다가 말했구나

매화나 보내고자 역로를 바라보니

처마 위에 뜬 달을 예전에 보던 낮빛인 듯

따뜻한 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푸른 바다 넓은 곳에 녀조차 흩어지니

㉢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태상 칠위분이 옥진군자 명이니

하늘 위 누각에서 피리를 울리시며

㉣ 지하 북풍에 죽을 운명 벗기실까

죽기도 운명이요 살기도 하늘이니

진채의 횡액을 공자도 못 면하며

죄 없이 잡힌들 군자라도 어이하리

오월 서리가 눈물로 어리는 듯

삼년 가뭄도 원통함에서 일어나도다

- 조위, 「만분가」 -

* 환해: 관리의 사회.

* 옥석: 옥과 돌이라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다)

강·회·하·한은 물 중에서 큰 것이다. 사람들이 다 반충·동백·곤륜·민산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달하기 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대개,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 물이 땅 밑에 있을 때는 비록 잠복하여 궤어 있으나 땅 위에 나오게 되면, 유동하기도 하고 가득 차기도 해서, 그 이치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다. 그러므로 성인은 땅 밑에 물이 있는 형상을 보고 이미 사괘*를 만든 후에 비괘*를 다음에 이었으니, 사람들에게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를 보인 것이다.

㉠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또 축축하게 젖는 것은 물의 남은 기운이다.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줄달아 잇닿다가 장강에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는 호호하고 꽤연히 넓고 넓어 활각 닥치어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하동에 있을 때에 집 곁에 작은 샘이 있는데, 그 근원이 수풀 속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 역측하고, 더럽게 여겨 먹지 않으려 했다. 내가 가서 보고 그 근원을 청소하고 그 흐름을 터놓아, 조금 동쪽에다가 벽돌로 우물을 만드니 바로 이웃에 있는 냉정으로 이름난 것과 수맥이 같고 맛이 또 같으니, 한 근원이요 물줄기만 나누어진 것이었다. 이에 부모들이 서로 와서 고마워하며 왕래하고 길어 써도 마르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옛말과 같이 지혜를 써서 물을 흐르게 한 것인가, 또한 흐르는 것을 거슬러 근원을 알아낸 것인가 하였다.

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 재주가 족히 임금을 착하게 하고, 백성을 윤택하게 할 선비가 있는데, 사람들이 곁에서 비방하면, 물러와서 거칠고 더러움을 참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하루아침에 성군과 지기를 만나 천하에 그 도를 행하게 된다면,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오늘날 **윗사람**은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의 곡직**에는 **근본하지 않**으니, 또한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하고 같다.

“하늘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징험한다.” 하였으니, 지금 물을 논함에 또한 그러하다. 맹자의 말씀에, “물을 보는 데는 방술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라고 하였다. 나는 또 말하기를, “물을 보는 데는 방술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근원에 근본하라.” 하였다.

— 이침, 「원수(原水)」—

*사래 : 땅속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비래 : 땅 위에 물이 있음을 상징함.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삶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가)는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역사적 인물을 호명하며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9. [A] ~ [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많은 술’을 사라지게 한 ‘부근’을 통해 ‘우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뜰 가’에 ‘채비 비비’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다.
- ③ [C]에서는 ‘설월’에 핀 ‘매화’를 통해 ‘호접’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 ④ [A]에서 드러난 ‘난 후’의 상황은 [B]의 ‘적객의 회포’와 연결되어 세상과의 단절 의지를 드러낸다.
- ⑤ [B]에서 ‘창밖’의 ‘새우’를 보는 상황은 [C]의 ‘창’을 열어 ‘향기’를 맡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2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입을 향한 그리움에 수척해진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물음이다.
- ③ ㉢: 입과 재회하지 못한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부각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 절망에서 벗어나겠다는 화자의 결심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⑤ ㉤: 사람들의 단편적인 시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물음이다.

21.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회·하·한·의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시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물의 성질을 바탕으로 물이 근원에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는 순서를 제시하며 물이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세간의 통념을 바로잡고 있다.
- ④ 하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쓰이는 이치에 대해 생각이 바뀐 계기를 밝히고 있다.
- ⑤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나)와 (다)는 작가가 경험한 부정적인 현실을 자연물과 연관 지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나)는 억울하게 유배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다)는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사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

- ① (나)는 ‘백옥 같은’ ‘마음’을 지켰지만 ‘무서리’가 ‘섞여 치’고 ‘억만 길 못에 빠’졌다는 것을 통해 억울하게 유배된 경험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는 ‘환해’에 내린 ‘뜻밖의 회오리바람’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자연물과 연관 지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는 ‘달’을 보고 ‘예전에 보던 낮빛’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다)는 ‘작은 샘’을 ‘더럽게 여’긴 것을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일과 연관 지은 것을 통해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사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다)는 ‘윗사람’이 ‘마음의 곡직’에는 ‘근본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금붕어는 어항 밖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 잎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눈이 가락지처럼 빠져져 나왔다. 인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 볼게다.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①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대쳐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 얇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향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위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이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려본다. 꿈이라 가르켜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를 건너서 지나해의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빛 해초의 산림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쪼겨댕겨 보고도 싶다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피려 죽여버려야 한다.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간다.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만 할 고향이라 생각한다.

- 김기림, 「금붕어」 -

(나)

아버지는 내가 법관이 되기를 원하였고
가난으로 평생을 찌르신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어찌다 시에 눈이 뜨고
애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는 부모의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나이 사십에도 궁터를 못 벗은 나를
살 붙이고 살아온 당신마저 비웃지만
서러운 것은 가난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맘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 사는 일에 길들지 않은
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도 노엽다
내 사람아, 울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아라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살기가 죽기보다 어렵구나
어쩌랴, ㉠ 바람이 탄 데서 불어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한 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 정희성, 「길」 -

2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24.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어느새’를 ‘화장한 따님’과 연결하여 금붕어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1연에서 ‘오를래야 오를 수 없’다는 생각은 3연에서 ‘지느러미’가 ‘향아리를 끊는 일이 없’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3연에서 ‘유리벽’을 ‘국경’이라고 여기는 것은 금붕어가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4연에서 ‘붉은 바다’에 대해 금붕어가 떠올린 생각은 5연의 ‘검푸른 비늘을 입’은 상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5연에서 ‘한류를 끊고 헤엄쳐 가’기 위해 6연에서 금붕어는 ‘배설물의 침전처럼’ ‘연령만 쌓’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2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고요한 내면세계를, ㉡은 내면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소재이다.
- ② ㉠은 현재의 안온한 생활을, ㉡은 현실에서의 유흥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③ ㉠은 시적 대상의 내적 성찰을, ㉡은 화자의 외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④ ㉠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식을, ㉡은 무력한 존재로서의 자각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은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은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품 속 상황에 대응하는 대상이나 화자를 통해 주제 의식이 형상화되기도 한다. (가)는 자유로운 세계를 동경하지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금봉어를 통해 이상이 좌절되는 양상을 드러내며, (나)는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가)는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나)는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아담하게 / 꼬리를 젖고 돌아’서서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는 것에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해초의 산림속’을 다니고 ‘쓴 매캐’를 ‘삼키고 싶’어 한 것에서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나)에서 ‘법관이 되기를 원’했지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는 것에서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에서 ‘궁티’를 벗지 못한 ‘나’가 ‘한 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겠다고 한 것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꿈을 오므려 /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과 (나)의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안군이 계단 아래에 있다가 임금께 아뢰었다.
 “비록 혼례는 하였으나 아직 첫날밤을 치르기 전입니다. 이제 부마로 간택하셨사오니, 왕명을 순순히 좇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니 거역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임금이 화난 얼굴로 말하기를,
 “너를 사랑하여 부마로 정하였거늘, 어찌 핑계를 대면서 감히 거절한다 말이나?”
 지경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최 씨 집안 여자와 혼례를 치르는 일이 없었다면, 어찌 감히 부마로 간택되는 은혜를 사양했사옵니까?”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네가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를 하더니 세상에 헛된 뜻이 생겨서, 웅주 정도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아니냐? 가장 무엄하다.”

지경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신이 어찌 그런 마음을 가졌겠사옵니까? 누구나 웅주마마와의 혼인을 원할 텐데 제가 어찌 꺼리오며, 신의 나이 아직 어리지만 제 말에 거짓이 없사옵나. 조정의 명사들이 잔치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그들을 불러 물어보옵소서.”

임금이 분노로 얼굴빛이 바뀌어 말하기를,

“혼례를 올려도 첫날밤을 치르기 전에는 남이다. 옛 사례가 있으니 성종대왕 때에 경에 공주가 혼례를 하고 첫날밤을 보내기 전에 돌아가셨다. 이에 파혼하고 부마의 지위를 거두어 다른 여자와 혼인하도록 조치하신 적이 있거늘, 네 위엄이 성종대왕보다 더하다는 것이냐?”

지경이 아뢰기를,

“신의 경우는 그와 다르옵니다. 그때 공주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제 아내 된 최 씨는 살아 있사옵나. 신이 부마가 되면 최 씨는 청춘과부가 될 것이니, 전하의 너그럽고 어지신 덕택으로 제가 인륜을 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회안군이 아뢰기를,

“빙채를 거두고 최 씨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낸다면, 어찌 홀로 늙겠사옵니까?”

지경이 노하여 아뢰기를,

“에시당초 회안군이 소관에게 구혼하다가 최가에 정한 고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일로 맺힌 마음이 있어 전하께 나를 부마로 천거한 게 아니오? 전하께 해를 끼치고 아부한 죄를 먼저 못할 것이외다. 조정 신하의 자식이 많거늘 아내를 얻은 신하에게 구태여 구하시고,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전하의 밝지 못하심이 한이로소이다.”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말하기를,

“회안군은 과인의 동생이니 네게 작은 임금이라. 내 앞에 서 욕하고 나를 사리 판단이 어두운 임금으로 능멸하니, 자식 못 가르친 죄로 네 아버지를 죄 주리라.”

지경이 웃으며 아뢰기를,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삼구 년에 일월(日月) 같으신 성덕이 십산궁곡에 미쳤거늘, 유독 소신에게는 밝지 않으심이 이렇듯 하시니 신은 죽어도 행복지 아니하리이다.”

임금이 더욱 노하여 말하기를,

“내 윤지경을 못 제어하리오. 군부를 욕한 죄로 금부에 잡아들이고, 그 아비 윤현도 함께 가두도록 하라. 길일을 받아 혼례 준비를 하고, 최홍일에게는 빙채를 도로 주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웅주와 감제로 혼인한 지경은 웅주를 박대하고 최 씨와 함께 지내려고 한다. 임금의 압력으로 가족들은 최 씨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나, 지경이 사실을 알고 최 씨를 다시 만나게 된다.

부마가 삼 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부인을 다시 만났으니 떠날 줄 알리오. 비복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양쪽 집 식구들을 모두 피해 왔으니, 종이 오거든 미리 일러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라.”

부마가 최 부인을 만나 새로이 진중한 사랑이 전보다 배나 더하더니, 한방에 거처하면서 일시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러구러 여러 날이 되니 윤 공이 생각하기를, 심사가 사나워 천계산에 있는 원당에 갔는가 하고 찾지 않았다. 옹주는 본래 불화한 사이라 거취를 모르니 찾지 않았다. 임금이 조회에 여러 날 불참함을 이상하게 여겨 찾으시니, 그제야 찾기를 시작하여 친구의 집과 천계산 절에 가 보았으나 종적이 없었다. 괴이하게 여겨 찾다가 돌아와 보니, 부마가 타던 말이 있었다. 행여 최 씨 있는 곳에 갔는가 의심하여 즉시 가 보았으나 미리 숨어서 보지 못하고, 거기도 아니 간 줄 알아 두루 찾아도 찾지 못한 지 수십 일이라.

조정에서는 윤지경이 마음이 사납고 어지러운 나머지 미쳐서 달아났는가 의심하고, 임금이 매우 놀라 밤낮으로 번뇌하였다. 윤 공이 의심스런 마음이 들어 영리한 하인을 시켜 부지불각에 들이닥쳐 보라 하니, 과연 최 씨의 처소에 있는지라. 이대로 임금에게 고하고 죄를 청하니, 환관 김송환을 불러 죄상을 밝히고 부르라 하시니 이때는 유월이라.

지경이 대청마루에 대나무 자리를 깔고 수놓은 방석을 베고 최 씨를 곁에 앉히고 발 벗고 책을 보는데, 시비 들어와 궁궐에서 사람이 왔음을 고했다. 부마가 최 씨를 곁에 앉힌 채 들어오라 하여 송환이 들어와 중계에 서니, 부마가 방석에서 머리만 들어 보다가 말하기를,

“네 어찌 왔느냐.”

송환이 답하여 말하기를,

“부마를 잃은 지 스무 날이 지나자 전하께서 놀라시어 수라도 못 드시고 지내시더니, 오늘에야 이곳에 숨어 계심을 아시고 노하시어 송환에게 불러오라 하시나이다.”

부마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르되,

“전하께서 가장 부지런하시고 부절없도다. 신하 제 아내 [B] 데리고 있는 것을 꺼려 잡으려고 보내시니, 조정에 애처(愛妻)하는 관원이 몇이나 잡혀 들어왔느냐.”

송환이 어이없어 웃으며 말하기를,

“부마께서 옹주를 박대하시고 최 부인에게 혹하여 **문안 불참**하신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또 그저께 박 귀인 생신이었는데 그 사위로서 불참함을 문죄하려 하시더이다.”

지경이 벌떡 일어나 앉아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혼군이 요첩에게 혹하여 소인과 함세하여 흥계를 깊이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현신충량*을 살해하고, 천하박색 첩탈을 위하여 나를 괴롭게 보채느냐. 간특한 첩의 생일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 대단하게 구시더냐. 그저 신하를 보려 부르시면 가려니와, 박 귀인 생일 불참 죄와 옹주 박대한 죄로 부르시면 끌어도 아니 가리라.”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 빙재: 혼인 전에 신랑이 신부집에 보내는 예물.

* 현신충량: 영리하고 어진 신하의 충실하고 선량함.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 묘사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인물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관은 임금의 명을 전하며 윤지경의 돌변한 태도에 당황해 한다.
- ② 윤지경은 회안군으로 인해 자신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토로한다.
- ③ 윤지경은 자신을 찾는 사람이 오면 미리 알려 달라고 하인에게 당부한다.
- ④ 윤 공은 윤지경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최 씨의 처소로 사람을 보낸다.
- ⑤ 임금은 윤지경이 허황된 욕심이 생겨서 옹주와의 혼인을 거절한다고 생각한다.

29.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태도를 조롱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방의 변심을 비판하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 ③ [A]는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하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제안에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방의 언행을 직접적으로 꾸짖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 ⑤ [A]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의도적으로 떠보고 있으며, [B]는 상대방의 마음을 계획적으로 회유하고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윤지경전」은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며 애정을 성취하는 주체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주인공은 강압적인 왕권을 비판하고, 애정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신의를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과 왕권의 대립이 토론 방식으로 서술되어 독자에게 논쟁적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기존 애정 소설과 차별성을 갖는다.

- ① ‘옛 사례’의 언급에 대해 ‘신의 경우는 그와 다르’다고 말하는 데에서, 기존 애정 소설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구태여 구하시고,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니 ‘밝지 못하’다고 하는 데에서, 강압적인 왕권을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시어 ‘성덕이 심산궁곡에 미쳤’다고 하는 데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금부에 잡아들이고’ ‘혼례 준비를 하’라는 데에서,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삼 년’ 만에 ‘부인’을 다시 만나 ‘한 달 가까이’ ‘문안 불참’했다는 데에서, 주체적인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완벽한 질서를 부르짖는 교장 선생님은 나무가 물들어 매 일매일 낙엽을 떨구기 시작하면 환경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아이들을 나무에 올려 보내거나 장대를 휘둘러 낙엽을 한꺼번에 깨끗이 떨구게 하곤 한 번에 쓸어 내게 했다. 그래서 무릉국민학교 교정의 나무들은 가을도 깊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나목(裸木)이 된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제작년에도 그랬었다. 나는 변기에 앉아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발가벗긴 나무들을 바라볼 적마다 정서의 불모지대를 보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었다. 그리고 완벽한 질서를 위해 행해지는 그런 유의 무리가 완전한 학습을 위해선 또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을까, 또 눈에 보이는 무리가 저렇게 추하거늘 눈에 안 보이는 무리는 얼마나 끔찍할까를 자못 심각하게 회의했었다. **그런 유의 회의에 사로잡히면** 내 아이들이야말로 낙엽을 한꺼번에 떨구는 부자연율 강요당하고 있는 어린 나목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로서의 가책과 사랑으로 가슴이 저렸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불편은 변기에 앉았는 동안만 나의 것이었다.

아파트의 생활 양식이란 게 티끌만 한 불편도 허용 안 하는 것처럼, 내 생활의 안일은 내 마음의 불편을 더운물이 눈 녹이듯 흔적도 없게 했다.

변기에 앉아 있는 동안이라도 불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나의 오랜 버릇 때문이었다. 양전한 소년이었을 적에도 뒷간에 앉았는 동안만은 엄청난 모반도 꿈꿀 수가 있었던 나의 오랜 버릇 때문이었다.

아내가 돌아왔다. 아이들이 엄마를 반겼다. 아내는 서양 여자처럼 아이들을 능숙하게 포옹하고 뺨에 뽀뽀를 했다.

“엄마야, 우리 반이 수혜 의연금 모금에서 일등 했어. 그래서 내일 신문사로 전달하러 가는 대표로 뽑혔다, 나.”

딸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잘됐다. 아이, 신동한 내 새끼.”

아내가 다시 딸애를 포옹하다 말고 밀치더니 옷장으로 달려갔다.

“가만있자, 뭘 입혀 보내지? 사진이 잘 받는 걸로 입혀야 텐데…….”

아내는 딸애의 ○○○장 속에 첩첩이 걸린 옷 중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딸의 어깨에 걸쳐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땡개치고, 다시 딴 것을 걸쳐 보는 일을 되풀이했다.

올여름 장마에 구시가에선 지독한 물난리를 겪었고 많은 수재민을 냈다. 각급 학교 및 사회단체에선 즉각 구호 금품을 걷기 시작했다.

무릉국민학교는 수재민뿐 아니라 모든 불우 이웃 돕기 운동에 열성적이었다. 그 결과 다른 학력 경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학교 중에서 단연 으뜸가는 성과를 거두어 신문에 자주 오르내렸다.

수재민은 여름마다 잘도 생겼고, 온정을 기다리는 불우 이웃은 겨울마다 잘도 생겼다. 무릉국민학교가 이름을 떨칠 기회도 그만큼 자주 생겼다.

일등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교장 선생님은 무릉국민학교가 일등 가는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내에서 반끼리 경쟁을 붙이는 **표안을 강구해** 냈다.

모금 실적이 가장 우수한 반은 반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상장을 주어 칭찬하고, 그 반 반장 부반장은 학교를 대표해서 신문사에 성금을 전달하러 갈 수 있는 영광을 준다는 게 그거였다.

교장 선생님은 청소도 환경 미화도 실력 고사도 고운 말 쓰기도 착한 일 하기도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이기를 좋아했다. 아이들의 조그만 가슴이 늘 경쟁의식으로 고무풍선처럼 충만해 있도록 하는 거야말로 교육의 사명이란 신념에 투철했다.

딸애는 부반장이다. 작년 연말 이웃 돕기 모금 때 딸애의 반은 이등을 해서 애석 상장을 타서 반에 걸어 놓을 수는 있었지만 신문사에 가서 모금한 걸 전달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광만은 애석하게도 놓치고 말았다.

그때 아내와 딸애는 어서어서 여름이 와서 다시 수혜가 나서 **수재민 돕기**를 할 수 있기를 조급스럽게 **별렀었다**. 마침내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중략)

이 단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증권 회사 건물이다. 여러 증권 회사의 무릉 출장소가 한데 모여 있는 건물이니만큼 거대하다.

금속성인 광택을 지니고 하늘 높이 예리하게 솟아 있는 걸 그 꼭대기까지 쳐다볼라치면 아똥하면서 현기증이 난다.

내가 그 앞에서 번번이 압도당하는 것은 그 높이 때문만은 아니다. 미구에 아내가 이 건물과도 인연을 맺을 것 같은 예감 때문이다. 저녁나절의 이 거리엔 산책을 나왔는지, 외식을 나왔는지 별 불일 없이 오락가락하는 가족들이 많이 눈에 띈다.

가족이라야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 데리고 있다. 때로는 아이들끼리 아는 척을 하기도 한다. 어른처럼 새침하고 예의 바르게 아는 척을 한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아는 척을 안 했지만 한 사람도 낯설진 않다. 비슷한 옷차림에 비슷한 표정들을 하고 있다. 특히 타협적이면서도 깔보는 듯한 표정 때문에 이웃끼리라기보다는 한 핏줄끼리 같은 혐오감 섞인 친근감조차 그들에게 느끼게 된다. **찰사는 사람다운 우월감**으로 함부로 남을 깔보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이중성이야말로 아내의 개성일 뿐 아니라 무릉동 주민 누구나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나는 별안간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급히 가까운 양식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실내는 침침하고 거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양식집 속에도 젊은 부부와 한두 명의 아이들로 된 가족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나는 능숙하고도 권태롭게 칼질을 하는 아이들을 뚫려미 바라보면서 내 아이나 남의 아이나 어딘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어른을 고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아 보여서였다. 엄마나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로 아이들은 하나같이 작은 어른이었다. 마치 성장을 억제해서 키운 **문제의 나무**라고 묘목하고 다른 것처럼.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하는 태도도 그렇고 작은 어른이지 조금도 아이들답질 않았다. 특히 아이들이다운 호기심이 없는, 타협적이면서도 깔보는 듯한 표정이 결정적으로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만들고 있었다.

이 거리의 아이들이 아이들답지 않다는 발견이 새삼스러운 건지 케케묵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난 새삼스럽게 그 발견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 박완서, 「낙토(樂土)의 아이들」-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교장 선생님의 교육적 신념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 ② 아내는 딸이 학교를 대표해서 성금을 신문사에 전달하기를 원했다.
- ③ 아내가 건물과 관련될 것 같은 예감으로 인해 ‘나’는 건물에 압도당한다.
- ④ ‘나’는 무릉동 주민의 표정을 아내와 연관 지으며 무릉동 주민의 모습을 낯설지 않게 느낀다.
- ⑤ 딸을 학교 대표로 세우려는 교장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 딸의 반은 작년보다 모금 실적이 우수해졌다.

33. 문제의 나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장 선생님’이 추구하는 ‘완벽한 질서’와 모순되는 소재이다.
- ② ‘옷’을 되풀이해서 골라주는 행위로 드러나는 ‘아내’의 불안을 의미한다.
- ③ ‘젊은 부부’가 가진 특성을 지니지 않은 ‘양식집 속’ ‘아이들’을 의미한다.
- ④ ‘아이들답지 않은’ ‘이 거리의 아이들’의 ‘이중성’을 약화시키는 소재이다.
- ⑤ ‘금속성인 광택’으로 상징되는 ‘무릉동 주민’의 욕망이 초래한 결과를 의미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낙토의 아이들」은 인간적 가치를 상실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무릉동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비인간적인 가치관과 과도한 경쟁심을 가지고,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태를 보여 준다. 이런 세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지만 물질의 편안함이 주는 일상에 안주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도 보여 준다.

- ①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묘안을 강구해’ 내는 것에서, 과도한 경쟁심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수재민 돕기’를 하려고 ‘별렀었’다는 것에서, 비인간적인 가치관을 지닌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물질의 편안함이 주는 일상에 안주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잘사는 사람다운 우월감’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것에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유의 회의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